



# MINI Market Report

국가	러시아
제품	신선딸기

주관사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CONTENTS

<b>I. 러시아 마케팅 방안</b> .....	<b>1</b>
1. 러시아 시장 특징 .....	1
2. 러시아 시장 진출 TIP .....	2
<b>II. 러시아 시장 정보</b> .....	<b>3</b>
1. 러시아 딸기 수입추이 .....	3
2. 러시아 과일 시장 동향 .....	4
3. 러시아 딸기 시장 동향 .....	7
<b>III. 러시아 가격 정보</b> .....	<b>10</b>
<b>IV. 러시아 유통 정보</b> .....	<b>12</b>
1. 서부·극동 러시아 유통 동향 .....	12
2. 주요 유통채널 .....	17
3. 유통채널별 기본 정보사항 .....	24
<b>V. 러시아 통관 정보</b> .....	<b>28</b>
1. 러시아 딸기 관세현황 .....	28
2. 러시아 통관 주의사항 .....	30
3. 수출업체 등록, 수입허가 제도 .....	31
4. 러시아 통관절차 .....	32
<b>VI. 러시아 검역 정보</b> .....	<b>35</b>
<b>VII. 러시아 라벨링 및 인증 정보</b> .....	<b>37</b>
1. 라벨링 정보 .....	37
2. 인증 정보 .....	39
<b>VIII. 러시아 바이어 정보</b> .....	<b>44</b>

※ 참고자료

# I 러시아 마케팅 방안

## 1. 러시아 시장 특징

### □ 딸기 소비량 증가 추세

- 러시아는 최근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구매력이 증대되었고, 건강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되면서 과일과 채소 섭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있음
- 이러한 영향으로 신선한 과일류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량의 증가 추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는 최근 10년 사이 1인당 평균 과일 및 딸기 소비량이 두 배 이상(2002년 1인당 35kg → 2012년 1인당 73kg) 증가함

### □ 딸기 수입 의존도 높음

- 주요 과일 및 딸기류의 생산량은 약 2,792,570M/T로 이를 kg으로 환산<sup>1)</sup>하여 러시아 전체 인구수에 대입하면 1인당 약 19.6kg정도 충족<sup>2)</sup>시키고 있음
- 이는 2012년 러시아인 1인당 과일 소비량 73kg 대비 약 27% 수준으로써 러시아 자국산 과일 생산량으로는 수요를 맞출 수 없음을 의미하며 전체 소비량 중 필요한 나머지 2/3 가량은 수입에 의존

### □ 러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하는 많은 서류

- 러시아 통관/검역을 위해서는 통상 10개 이상의 서류가 필요하며 모두 러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작성 방법도 까다로운 등 절차상 어려움이

1) 1 M/T = 1,000kg

2) 2,792,570,000kg (2012년 과일 및 딸기류 생산량) ÷ 142,517,670명 (2012년 러시아 전체 인구) = 19.59kg

---

따름

□ GOST 의무화 등 까다로운 수입 절차

- 농식품 수출을 위해 필수인 GOST, 식품위생인증 등 각종 인증이 별도로 필요하므로 한국 내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큰 애로사항 중 하나임

## 2. 러시아 시장 진출 TIP

□ 러시아 딸기 시장 진출 성공 사례

- 현지 기후 및 풍토를 고려한 수출전략 성공사례 : 일본 딸기

- 일본 JA전농은 후케렌 딸기를 2007년 말부터 러시아에 시범 수출하기 시작함
- 딸기는 기온이 높으면 쉽게 상하기 때문에 과거 일본 딸기의 아시아 각국에 대한 출하는 날씨가 추운 1~2월 시기에만 한정되었으나, 딸기가 제철을 맞이하는 3~4월에 수출을 늘리기 위해 현지 기후를 고려하여 러시아 북쪽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함
- 이에 따라 제철을 맞아 맛과 풍미, 식감이 모두 최상인 상태의 딸기를 제때 공급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수출이 순조롭게 지속되고 있음

□ 러시아 딸기 시장 진출 제언

- ① 타깃 층 : 고소득 소비층 공략(상위 15%, 월소득 4만8천 루블(1,400달러) 이상)
- ② 포지셔닝 : 고품질·고가격 정책으로 프리미엄급 이미지를 유지하고, 일본산 대비 방사능오염 없는 청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딸기임을 홍보
- ③ 경쟁제품 : 네덜란드, 이스라엘, 일본산 딸기
- ④ 품질관리 : 딸기 특유의 달콤한 향 유지
- ⑤ 공급·물류 : 공급되는 딸기의 일본산 대비 품질관리를 가장 중시해야 함

## II 러시아 시장 정보

### 1. 러시아 딸기 수입추이

□ 신선딸기에 가장 근접한 HS CODE는 「0810.10」로 파악되었음

< 신선딸기의 HS코드 >

0810.10	초본류 딸기 (Strawberries)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러시아의 신선딸기 수입 동향

- 러시아의 2013년도 약 1억 2,544만 달러 규모의 신선딸기를 수입하였으며 주요 수입국은 그리스, 터키, 스페인, 폴란드 등이 있음
- 러시아의 최대 수입국은 그리스로, 2013년 그리스로부터 약 4,758만 달러의 신선딸기를 수입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9.02% 증가한 수치임
- 그리스에 이어 터키에서 약 2,581만 달러, 스페인에서 1,557만 달러 규모의 신선딸기를 수입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한국은 17위로, 러시아는 한국으로부터 약 24만 달러 규모의 신선딸기를 수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16.55% 증가한 수치임

< 러시아의 신선딸기 수입 통계 >

Russia Import Statistics					
Commodity: 0810.10, Strawberries, Fresh					
Calendar Year: 2012 - 2013					
Partner Country	United States Dollars		% Share		% Change
	2012	2013	2012	2013	2013/2012
World	114,885,560	125,448,278	100.00	100.00	9.19
1 Greece	43,651,272	47,589,249	38.00	37.94	9.02

2	Turkey	19,067,937	25,817,710	16.60	20.58	35.40
3	Spain	15,984,508	15,570,789	13.91	12.41	-2.59
4	Poland	13,611,215	12,295,626	11.85	9.80	-9.67
5	Netherlands	6,904,884	6,389,601	6.01	5.09	-7.46
6	Serbia	3,111,874	5,479,523	2.71	4.37	76.08
7	Egypt	2,809,931	3,663,866	2.45	2.92	30.39
8	Belgium	5,873,034	3,552,048	5.11	2.83	-39.52
9	China	1,101,049	1,427,484	0.96	1.14	29.65
10	Morocco	15,719	1,087,315	0.01	0.87	6817.17
∴	∴	∴	∴	∴	∴	∴
<b>17</b>	<b>Korea, South</b>	<b>111,066</b>	<b>240,519</b>	<b>0.10</b>	<b>0.19</b>	<b>116.55</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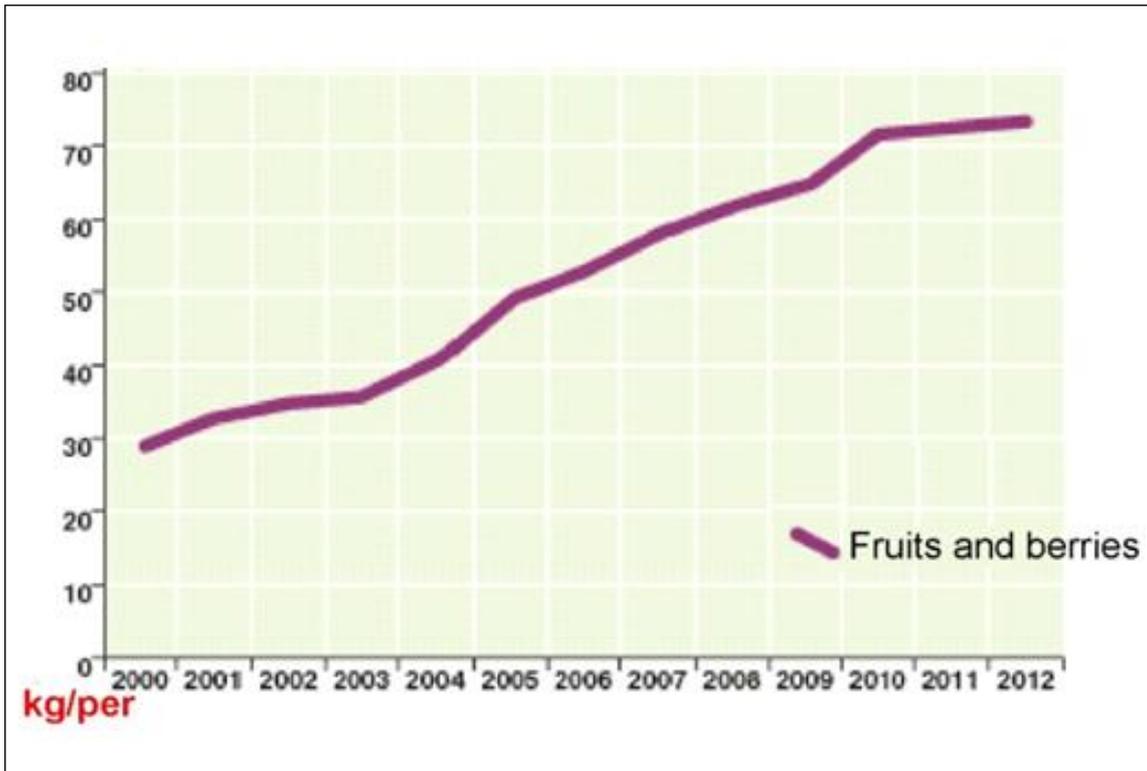
출처 : GTA (<http://www.gtis.com/gta>)

## 2. 러시아 과일 시장 동향

- 러시아는 최근 10년 사이 1인당 평균 과일 및 딸기 소비량이 두 배 이상(2002년 1인당 35kg → 2012년 1인당 73kg) 증가함
- 그동안 과일 섭취량이 낮았던 이유는 혹독한 추위라는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고열량 음식인 고기류를 즐기는 식습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며, 기후·경제적 요인으로는 겨울과 봄철 과일 공급량 하락에 따른 비싼 과일값 때문임
- 러시아는 최근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구매력이 증대되었고, 건강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되면서 과일과 채소 섭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있음. 이러한 영향으로 신선한 과일류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량의 증가 추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RosStat」社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10년 사이 개인당 평균 과일 소비량이 무려 두 배나 뛰었음. 평균 러시아인은 일 년 간 과일 72.6kg를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됨

< 2000~2012년 러시아인 과일 평균 섭취량 >

(단위: 1인당/kg)



출처 : Russian food & drink market magazine № 6 / 2013

- 위 통계는 길거리 노점상이나 가게, 마트에서 판매되는 과일뿐 아니라 개인 텃밭, 주말 농장에서의 수확물 역시 포함하고 있음. 도시화가 오래전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개인 텃밭, 주말 농장의 수확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 러시아 농장에서 산출되는 베리류(딸기, 블랙베리, 라즈베리 등)는 전체 베리류의 1.5~5% 정도이며 토마토, 오이는 전체 생산량의 8~15%를 차지함. 대부분의 베리류, 열대지방 과일(키위, 망고)은 기후 조건으로 인해 수입산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음
- 「AC Nielsen」社의 리서치에 따르면 도시에 사는 러시아인 반 이상이 하루에 한 번 과일을 먹는 걸로 조사됨. 겨울(11~4월)에는 「과일을 일주일에 한 번 먹는다」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많았으며 여름(5월~10월)에는 「과일을 매일 여러 번 먹는다」라고 응답한 소비자들이 많았음. 겨울에는 과일값이 비싸짐에 따라 러시아 과일시장에서 계절 역시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음. 일반적으로 바나나, 귤 수입은 계절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편임

□ 수입산 과일 의존도 상승

- 러시아의 과일시장 규모는 2012년 기준 연간 100억 달러 가량으로 추산되며, 이 중 수입과일 의존도는 70% 정도로 매우 높은 편으로, 향후 수입산 수요가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됨
- 겨울이 긴 러시아의 기후특성상 다양한 과일류 생산이 제한적이며, 유통업체의 독점적인 행태와 복잡한 유통채널, 보관 기술의 어려움 등으로 러시아 내수 과일의 품질과 가격이 수입제품과의 경쟁에서 오히려 뒤처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 2011년 WTO 가입의 영향, 러시아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의 향상 및 구매 성향의 다양화, 수입산 과일에 대한 높은 선호도로 인해 향후 과일 수입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 주요 과일 및 딸기류의 생산량은 약 2,792,570M/T로 러시아 전체 소비량의 약 27% 정도만 충족시키는 수준임

- 주요 과일 및 딸기류의 생산량은 약 2,792,570M/T로 이를 kg으로 환산<sup>3)</sup>하여 러시아 전체 인구수에 대입하면 1인당 약 19.6kg정도 충족<sup>4)</sup>시키고 있음
- 이는 2012년 러시아인 1인당 과일 소비량 73kg 대비 약 27% 수준으로써 러시아 자국산 과일 생산량으로는 수요를 맞출 수 없음을 의미하며 전체 소비량 중 필요한 나머지 2/3 가량은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러시아 주요 과일 및 딸기류 생산량: 2012 >

품목	생산량
수박	1.151.580
사과	986.000

3) 1 M/T = 1,000kg

4) 2,792,570,000kg (2012년 과일 및 딸기류 생산량) ÷ 142,517,670명 (2012년 러시아 전체 인구) = 19.59kg

포도	324.290
딸기	165.000
버찌	66.700
살구	51.000
구즈베리	48.000
합계	2.792.570

출처 : APEDA 2012

#### □ 러시아 과일 전망

- 지난 십 년간 러시아 과일시장은 해외 공급업체들의 관심을 끌었음. 여러 해외 공급업체들은 러시아 과일시장에서 공평하게 유통할 기회를 얻고 있음. 「Tekhnologii Rosta」社의 추산에 따르면 사과, 토마토, 오이 수입은 해마다 2~5% 성장하고 있음. 피망, 샐러드, 배, 딸기 역시 해마다 수입량이 20~30% 정도임. 러시아에 주로 신선한 채소, 과일은 1~5월에 수입되고 이 때 수요와 도매가가 높음
- 러시아인의 경제력이 성장하고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러시아인의 과일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수입산이 과일시장에서 더 큰 비중을 점차 차지하며 러시아 현지 농장 가구의 손해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봄. 「국가 농업 지원 프로그램 2013-2020년」 계획에도 과일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없을 것으로 보임. 또한,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수입폭이 넓어지면서 현지 농장 가구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3. 러시아 딸기 시장 동향

#### □ 딸기 시장 동향

- 수입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2배 가까이(약 56백만 달러 → 약 1억 달러)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서부러시아 지역에서 딸기 시장 점유율이 높은 네덜란드는 러시아 수입 관문인 서부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항구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물류센터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딸기 공급이 원활하다는 이점을 갖고 있음
- 극동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는 동절기에 대형마트에서 네덜란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산 딸기가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과 한국산 딸기의 유통 물량이 모스크바 대비 많음
- 극동러시아 지역에서 한국산 딸기에 대한 현지 인지도는 높으나, 소량만이 고가로 판매되고 있음

#### □ 딸기 시장 전망

- 베리 종류 중 러시아인은 주로 딸기를 선호하며 2012년과 2013년 그리스, 터키에서 수입된 베리가 많았음. 라즈베리, 블랙베리 수입은 약 62%가 멕시코산임
- 러시아의 식품시장 중 과일은 가장 유망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로, 식품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봄
- 겨울이 긴 러시아의 기후특성상 다양한 과일류 생산이 제한적이며, 연간 100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과일시장에서 수입과일 의존도는 70%정도로 매우 높은 편, 향후 수입산 수요가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됨
- 과일시장 성장 요인으로는 러시아인의 구매력 성장, 영양을 고려한 식단의 인기 등으로 볼 수 있음
- 과일, 채소, 허브 소비율은 사회의 부, 건강, 발달 수준을 설명해주는 지표로 볼 수 있는데, 러시아인의 경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중요성이 커짐
- 점차 수입산 과일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현지 과일이 적자를 보이고

---

있고, 러시아 식품 전문가들은 현지 수확물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과일 보관 기술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 극동러시아는 극심한 빈부차로 인해 상위 5-7%의 소비자는 대형식품매장에서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지에서 생산된 고급 농식품을 소비하는 반면, 93%의 소비자는 재래시장에서 주로 중국산 및 자국산 농식품을 소비하고 있음
- 유럽 및 이스라엘 제품의 경우, 대부분 모스크바를 경유해 항공으로 블라디보스토크로 운송되고 있으며, 한국, 일본, 호주 제품은 블라디 공항이나 항구를 통해 직접 수입됨
- 딸기 구매시 고려요인이 신선도로 나타나, 좋은 맛과 향을 중시하는 타 과일과는 다른 선호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딸기 수출시 신선도 유지에 대한 세심한 주의 및 관심이 필요함

## III 러시아 가격 정보

### □ 현지 딸기 가격

원산지	러시아	러시아
제품 이미지		
제품명	Клубника свежая (500g)	Клубника свежая (250g)
가격	129.90 RUB	119.90 RUB

출처 : <http://juicyco.ru/>

원산지	네덜란드	러시아	이탈리아
제품 이미지			
제품명	네덜란드 딸기 (500g)	하트 (125g)	이탈리아 딸기 (250g)
가격	288 RUB	236 RUB	156 RUB

출처 : <http://www.7cont.ru/>

원산지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제품 이미지			
제품명	냉동 딸기 (1kg)	말린 딸기 (130g)	설탕 시럽에 말린 딸기 (100g)
가격	220 RUB	125 RUB	410 RUB

출처 : <http://www.delikateska.ru/>

원산지	네덜란드	한국
제품 이미지		
제품명	네덜란드 딸기 (450g/팩)	한국 딸기 (500g/팩)
가격	239 RUB	726 R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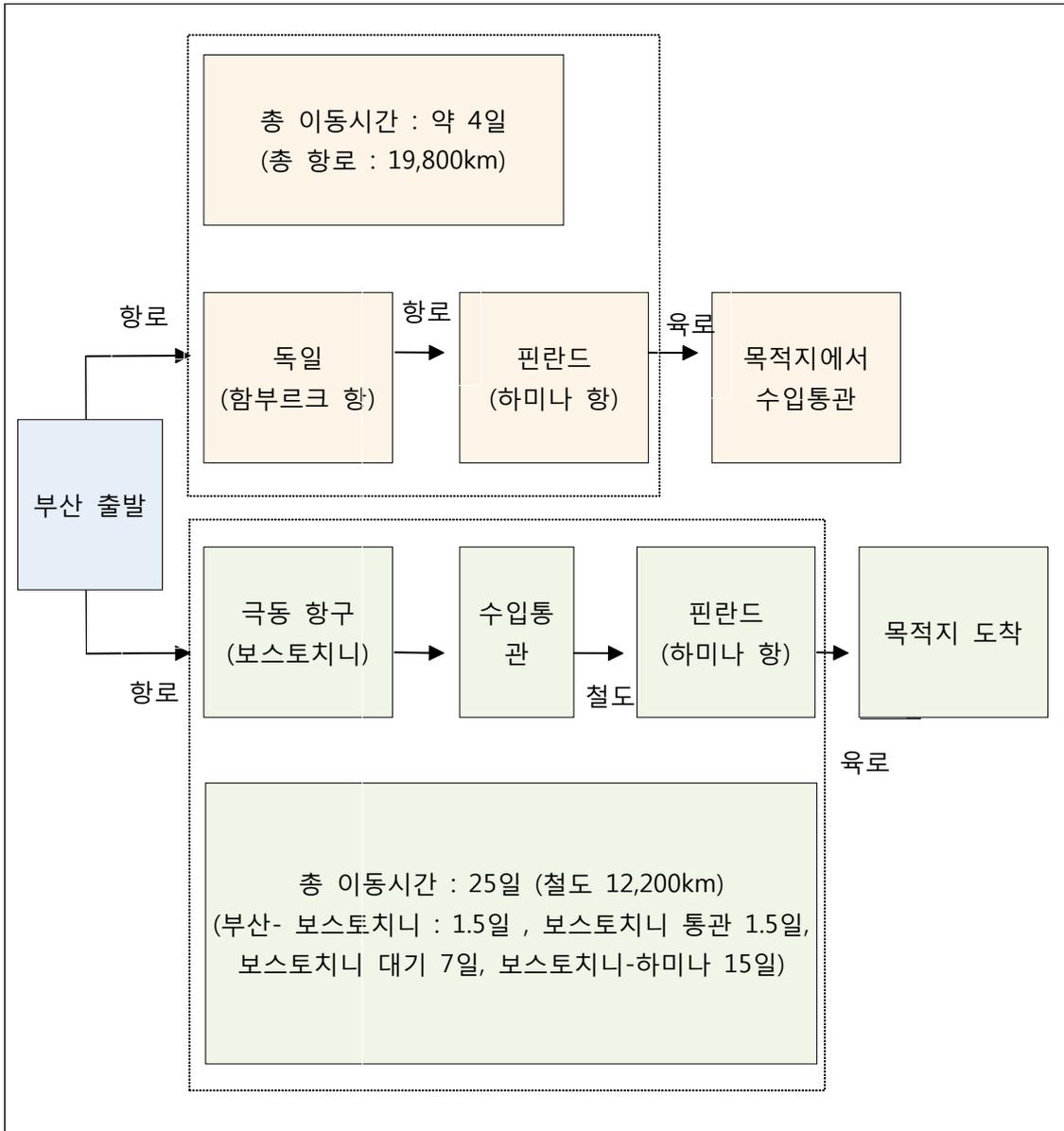
## IV 러시아 유통 정보

### 1. 서부 · 극동 러시아 유통 동향

#### □ 서부 러시아 유통 동향

- 러시아로의 주요 수입 운송수단은 배(ship)이며, 약 80%의 과일 수입이 서부러시아 지역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수입 운송의 관문이 되는 제2위의 항구도시는 흑해 연안의 「노보라시스크」임
- 이에 따라, 과일 수입·유통 업체들도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항구도시에 밀집되어 있으며, 대규모 업체들은 규모가 크고 첨단 장비를 갖춘 보관 창고 및 운송 수단 등을 보유하고 있음
- 현재 러시아 과일 시장에서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에 소재한 유통 3사인 「JFC」社, 「Traders」社, 「SORUS」社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 이들 3개 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소규모 수입업체들로서 1인 수입업자이거나 5인 이하 수입업체들이 다수임
- 소규모 수입업체들의 경우 높은 관세율과 과일에 대한 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러시아 과일 시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불법 유통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이는 모스크바의 회색유통체계(Grey market)라고 불리는데, 수입관세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직접 유럽 등지에서 사과, 배, 감귤류 등을 트럭으로 운반하여 러시아에 전국적으로 공급하는 것임. 이러한 불법 시장규모는 연간 2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음
- 대규모 유통 3사에게 가장 큰 경쟁자는 회색유통으로, 이들 업체들은 유통망 체계를 보다 조직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유통을 위한 터미널을 주요 도시에 건설하거나 러시아 전역을 커버하는 유통망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자본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음

- 서부 러시아 화물 운송 경로



출처 : aT 심층조사결과보고서 러시아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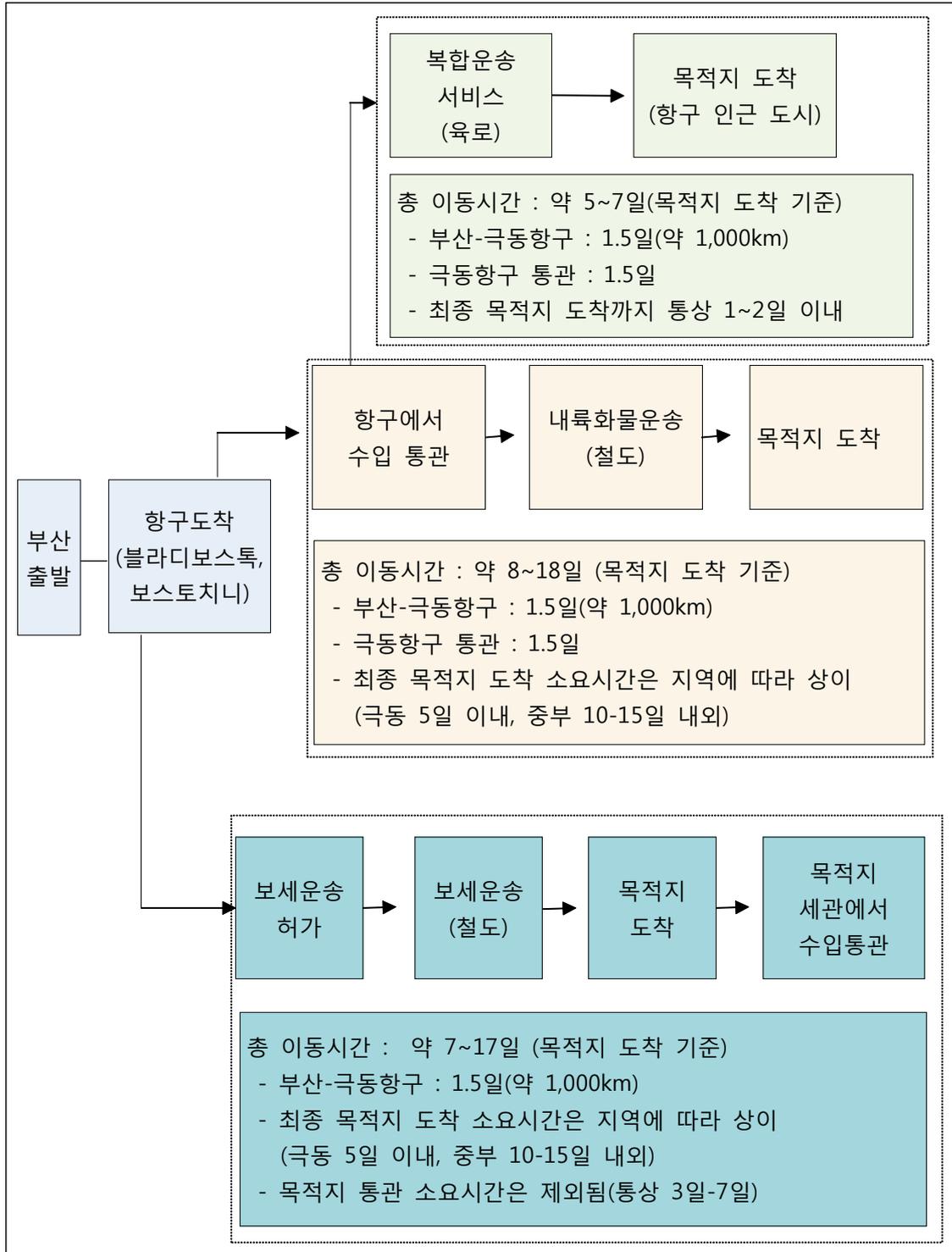
□ 극동 러시아 유통 동향

- 기존의 서부 러시아 즉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딜러를 이용함 그러나 큰 물류비용과 장기간의 소요, 제품 보관의 문제가 있음
- 극동지역 과일류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들은 중국시장으로 트럭이나 철도를 이용해 직수입을 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 미국,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등지에서 해상운송을 이용한 직수입은 대부분 블라디보스톡항, 보스토치니항을 통해 수입됨
  - 한국, 일본 등지에서 해상 운송을 이용한 수입은 접근성이 좋으나 이러한 경로의 이용경험이 부족함
  - 서부 러시아 딜러들은 물류 비용과 시간 소요 때문에 극동지역으로의 유통을 선호하지 않음 서부 러시아의 대형 유통 3사의 경우도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까지만 유통체계를 갖추고 있음. 따라서, 극동지역의 과일 도소매업체들은 스스로 판로를 개척해야만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또한, 극동지역 물량 조달 수단은 대부분 트럭이고 철도의 경우, 공간도 넓고 안전하지만 적기에 딜리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임
  - 극동지역의 과일 유통 물량은 최소 연간 30만~40만 톤 정도라고 알려져 있으며, 유통 관계자에 따라 이보다 몇 배 더 많은 물량이 유통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
  - 전반적으로, 극동지역의 과일 유통시장은 중국을 통한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러시아 정부는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과일 및 야채 시장을 건설할 예정으로 알려져, 향후 중국으로부터의 과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과일은 품질면에서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 이러한 중국산 과일의 교역량 증가는 한국산 과일의 러시아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극동러시아의 사과 및 기타 과일 등의 수입 성수기는 9월에서 10월이며, 특히 12월에서 1월, 새해와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소비가 많고, 이러한 현상은 5월까지 지속됨

□ 러시아 유통업체 동향

- 극동 러시아-중부 러시아 화물 운송 경로



출처 : aT 심층조사결과보고서 러시아편

- 현지에서 대형 유통업체와 현지 벌크 세일업체간의 경쟁이 심해져 중소기업체는 사라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모스크바는 물론이고 지방까지도 대형 물류업체가 진출함으로써 지방의 소규모 유통업체는 어려움을 겪는중
- 대형유통업체인 「METRO」 社의 경우 대형 유통망과 판매망을 통하여 생산업체와 직거래를 통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자체의 물류센터를 이용하여 러시아 전역에 물건을 판매하는 등 다른 유통업체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러시아 업체들은 유통센터의 건설과 물류센터의 전산화에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물류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고 소매점으로 배급하는 배급망과 물류창고의 시설이 낙후되어 하역과 운송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노후 된 리프트, 창고의 시설 낙후로 인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설 설비 재투자와 노하우가 필요
- 직판체제는 고유의 브랜드를 강화하거나 판매의 점진적 향상을 추구하는 업체에 더 효율적임 대량판매가 목표인 기업체는 직판보다는 딜러를 통한 판매가 주효
- 딜러 및 위탁판매체제는 한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미 구축해 놓은 러시아 유통망을 이용하여 손쉽게 러시아 시장을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특히 방대한 영역의 시베리아의 경우 딜러와 위탁판매를 통한 시장개척이 유리

□ 네덜란드을 경유한 수출루트

- 네덜란드을 경유한 수출루트는 대략 5\$/kg 정도 절감가능하나 운송기간 5일이 추가되어 품질하락 불가피하며, 관세회피를 위해 한국산을 네덜란드산으로 불법수입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구분	모스크바 직행	네덜란드경유
운송비	항공 3,100원/kg	항공 2,600원/kg, 내륙 1\$/kg

관세	6\$/kg	7\$/kg
운송시간	항공(2일)	항공 및 내륙(7일)

출처: KATI (www.kati.net)

## 2. 주요 유통채널

□ Top 10 Retailer들의 영향력 및 시장 장악력이 매우 큰 구조

- 러시아 소매유통 시장은 「X5 Retail Group」社를 필두로,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유통체인에 의한 영향력이 매우 큰 구조를 보임
- 최근 급성장한 러시아 현대식 유통체인 중에서도 상위 10개 그룹의 위상은 러시아 전체 식료품 시장의 26%, 도시지역 러시아 식료품 시장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의 현대식 소매점 중에서는 무려 88%를 차지하고 있음

< 러시아 내 Top 10 Retailer 및 위상 >

순위	업체명
1	X5 Retail Group
2	Magnit
3	Auchan Group
4	Metro Cash&Carry
5	Dixie Group
6	Dorinda Holdings(O'Key)
7	Lenta
8	Seventh Continent
9	Spar
10	Element-Trade(Monetk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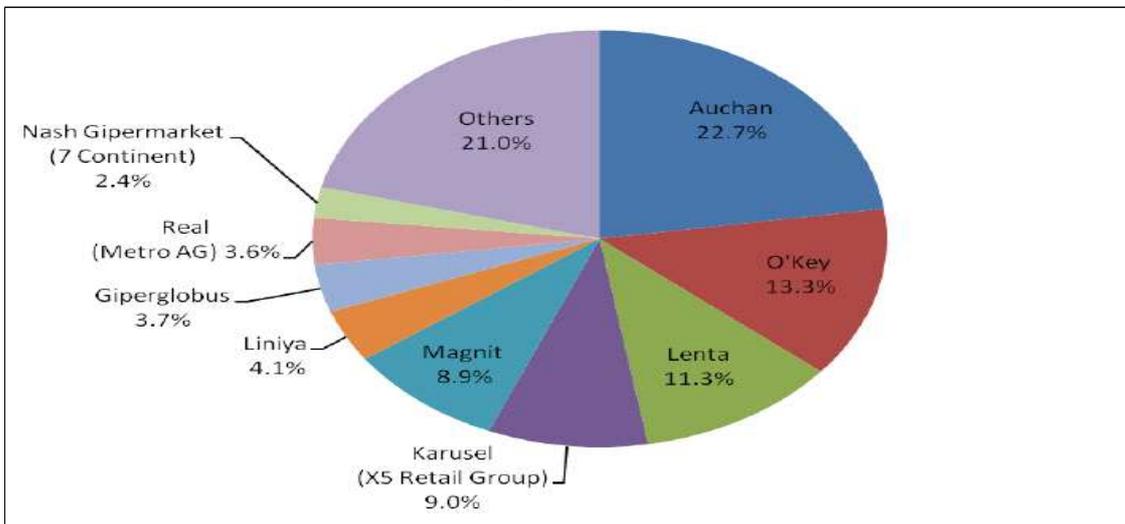
출처 : Euromonitor 2011

□ 이들 상위 Retailer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통채널 유형은 하이퍼마켓(대형마켓), 슈퍼마켓, 캐시 앤 캐리(Cash & Carry: 창고형 매장 형태), 편의점등이 있음

① 하이퍼마켓(Hyper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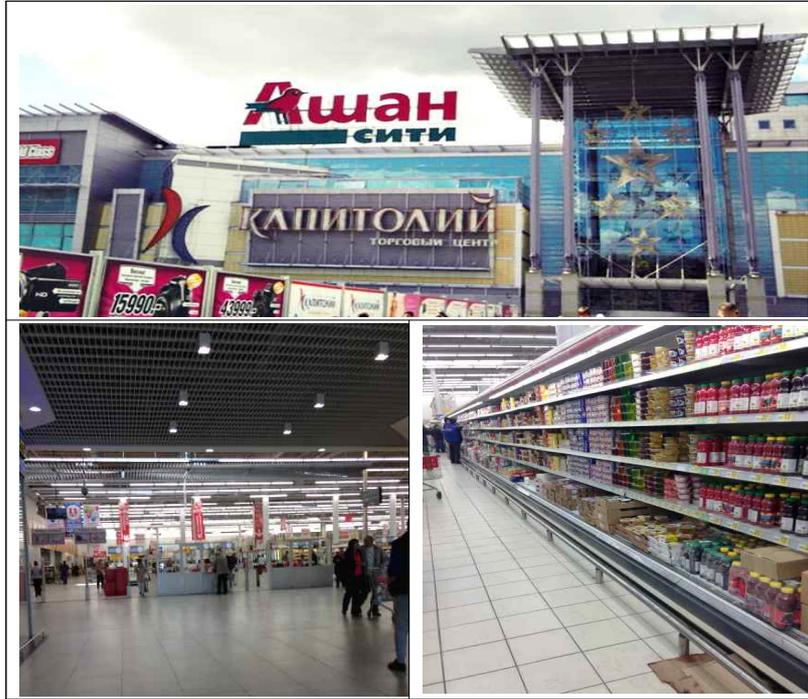
- 통상 2,500m<sup>2</sup>이상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형마트와 거의 유사함
- 주로 대도시의 외곽에 위치해 있으며 대표적인 매장으로는 「Auchan」社, 「O'Key」社, 「Lenta」社 등이 있음
- 하이퍼마켓의 타겟 고객층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좋은 품질과 다양한 구성의 제품을 찾는 고객들임

< 러시아 Hypermarket 점유율 >



출처 : Euromonitor 2011

< 러시아 Hypermarket 전경 「Auchan」 社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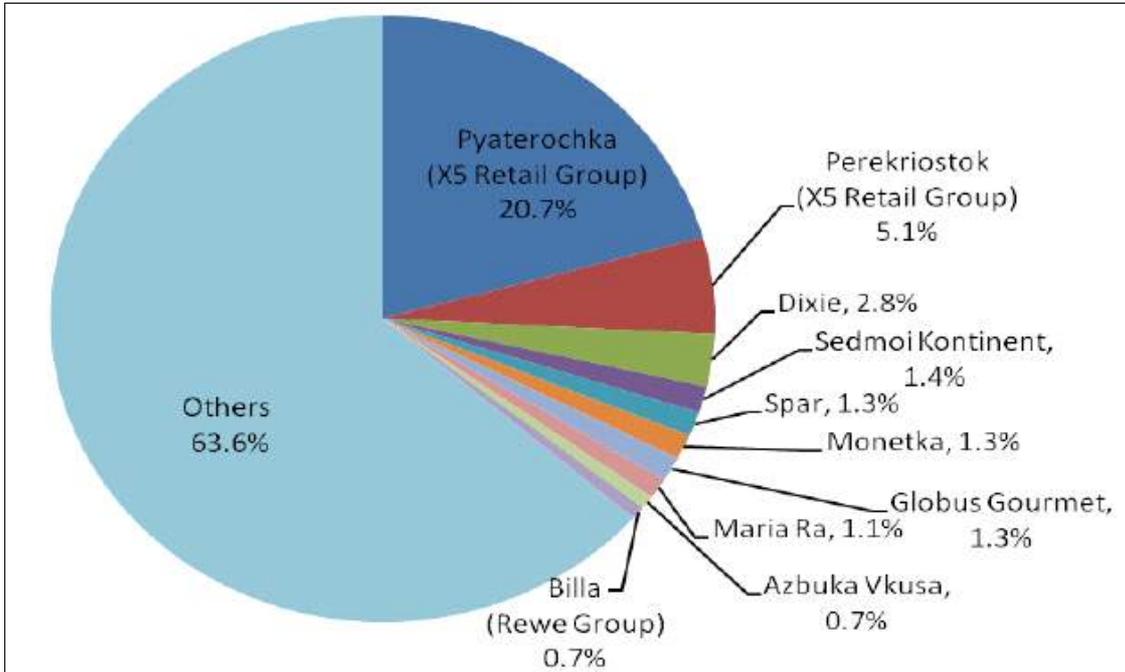


출처 : 심층조사분석보고서 러시아편

② 슈퍼마켓(Supermarket)

- 통상 400~2,500㎡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70%이상의 물건이 식료품과 생활품으로 구성된 유통형태임
- 「Pyaterochka(X5그룹에서 운영)」社로 대표되는 저가격 슈퍼마켓의 주요고객층은 저소득층, 노년층, 학생임
- 「Sedmoi Kontinent」社, 「Globus Gourmet」社, 「Azbuka Vkusa」社 등은 슈퍼마켓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가의 프리미엄 슈퍼마켓으로 포지셔닝 되어 있음. 이들을 찾는 고객층은 도심 중심부에 거주하는 부유층이기 때문에 주로 도심 중심가에 위치함
- 크게 보면 슈퍼마켓은 하이퍼마켓, 편의점, 소규모 식료품점과 같은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경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러시아 Supermarket 점유율 >



출처 : Euromonitor. 2011)

< 러시아 Supermarket 전경(Pyaterochk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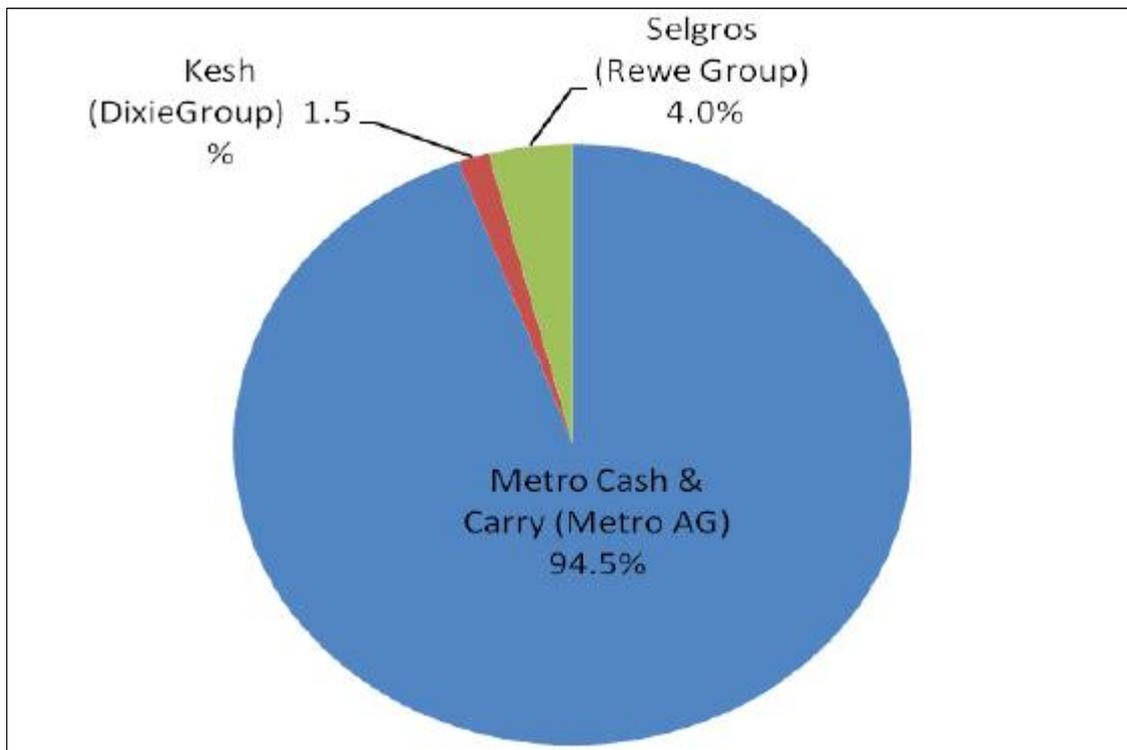
< 러시아 Supermarket 전경(Sedmoi Kontinent) >



### ③ 캐시 앤 캐리(Cash & Carry)

- 통상 8,000m<sup>2</sup>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대규모 도매업체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창고형 매장과 유사한 형태임
- 도소매상들 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도 주 고객으로 삼고 있고, 소매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회원제로 운영됨(러시아 내 예시: 메트로)
- 식료품 및 비식료품까지 다양한 물품을 취급하며 대량의 큰 포장 형태의 상품들을 주로 제공함
- 현재 독일계 「메트로(Metro)」社가 러시아의 캐시 앤 캐리 형태의 시장을 점유 하고 있으며, 러시아 업체로는 「케쉬(Kesh)」社가 있음

< 러시아 캐시 앤 캐리 점유율 >



출처: Euromonitor. 2011

< 러시아 Cash & Carry 전경(Metro)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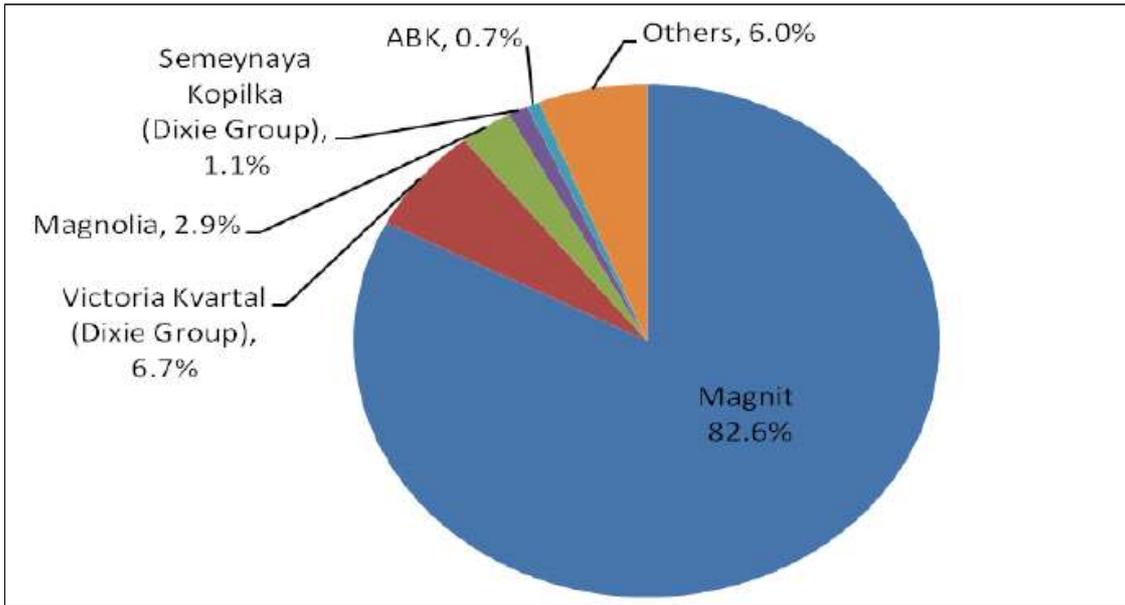


④ 편의점(Convenience Store)

- 편의점은 식료품 유통업체로, 규모가 작고(300m<sup>2</sup> 미만) 주거지역에 위치함
- 동네의 주요 식료품 매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편의점과 마찬가지로 24시간 운영되는데 러시아에서 편의점은 전통식 유통채널의 역할을 점차 대신하여 가는 추세임
- 러시아의 고객들은 시간절약을 위해 슈퍼마켓이나 하이퍼마켓 대비 거주지와 더 가까운 편의점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량의 물건을 자주 구매하므로 앞서 언급한 여러 유통 유형들과 비교시 방문 빈도는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음
- 24시간 편의점이 계속 개점하는 추세이며, 소량의 신선류를 취급하는 매장과 신선류를 전혀 취급하지 않는 초소형 매장으로 나뉨. 편의점에서는 식료품뿐만 아니라 생필품, 신문, 잡지, 알코올류, 꽃 등을 취급하고 있음
- 편의점내에서는 「Magnit」社가 83%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Magnit」社는 러시아 전체 유통시장 내 매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통사로,

전체 매장의 3분의 2를 인구 50만명 미만의 지방 중소도시에 포진시키는 지방 밀착형 소규모 영업 전략을 구사해오고 있음

< 러시아 편의점 점유율 >



출처: Euromonitor. 2011

< 러시아 편의점 전경 「Magnit」社 >



### ⑤ 재래시장

- 과거 러시아의 재래시장은 넓은 광장에 가판 형태로 늘어선 상인들의 집합소 형태로 운영 되었으나 러시아 정부의 재래시장 현대화 정책에 따라 점차 지붕 있는 시장 형태로 변모함

- 이에 따라 최근에는 대부분의 시장들이 지붕이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재래시장은 하이퍼마켓, Cash & Carry 등 대형 현대식 유통채널 대비 거주지 밀집지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러시아 소비자들은 신선한 야채, 육류 등 보관기간이 짧은 식품들을 주로 소비함
- 하지만, 골목마다 들어서고 있는 현대식 편의점과 매장 수를 늘려나가고 있는 현대식 슈퍼마켓으로 인해 점차 소비자들의 재래시장으로의 발걸음은 뜸해지는 추세임

< 러시아 재래시장 전경 >



### 3. 유통채널별 기본 정보사항

□ 러시아 내 주요 유통채널 정보 : 슈퍼마켓

매장명	주요 취급품목	입점조건	주요고객
Azbuka Vku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ood,</li> <li>- Fashion,</li> <li>- Personal care,</li> <li>- Home care,</li> <li>- Entertainment</li> </ul>	<p>&lt; 제품 관련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 및 카탈로그, 제품가격표, 제품레제이션, 제품 등록증, 제품샘플</li> <li>- 입점 신청카드</li> </ul> <p>&lt; 회사 관련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 카드(기업 이름, 법적주소지 및 실제 주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산층 및 그 이상 (월소득 2만5천 루블 이상)</li> </ul>

		<p>전화번호, 대표자 및 담당회계사(있을 시) 이름 및 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계좌개통확인 인증서</li> <li>- 계약인에 대한 변호사의 letter</li> </ul> <p>※ 모든 문서 및 사본에는 업체의 날인이 되어있어야 함</p>	
Globus Gourm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ood,</li> <li>- Fashion,</li> <li>- Personal care,</li> <li>- Home care,</li> <li>- Entertainment</li> <li>- Bar &amp; restauran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점 신청카드 (별도 양식)</li> <li>- 은행계좌개통확인 인증서</li> <li>- 총책임자(결정, 협약)의 권한을 확인하는 위임장)</li> <li>- 세금 등록증명서</li> <li>- 법인 국가등록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산층 및 그 이상 (월소득 2만5천 루블 이상)</li> </ul>
Seventh Continent (Sed'moy Kontin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료품 및 잡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리미엄 타깃층 (월소득 4만 루블 이상)</li> </ul>
Victo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료품 및 잡화</li> </ul> <p>&lt;테넌트 샵&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셀프서비스 형태의 스낵바</li> <li>- 카페테리아</li> <li>- 갤러리, 약국</li> <li>- 사진관</li> <li>- 옷가게</li> <li>- 약국</li> </ul>	<p>&lt;제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되는 상품의 상세한 설명</li> <li>- 제품에 대한 기술 정보</li> <li>- 프로그램 광고 (빅토리아 광고 제안에 따라 구성)</li> </ul> <p>&lt;업체&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소개서(과거 주요 시장에서의 연매출 기록 필수포함)</li> <li>- 담당자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팩스번호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산층 이하 전계층 (월소득 4만 루블 이하)</li> </ul>
VL Mart	<p>가정용 소비재 (2,500개 이상) 식료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잘 알려진 국내생산 및 공급(수입) 업체와의 직접 납품계약에 의한 입점 (VL 마트와 연계된 수입업자인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입점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산층 이하 전계층 (월소득 4만 루블 이하)</li> </ul>

Pyaterochka	가정용 소비재 (3,000개 이상) 일반 식료품	-	- 중산층 이하 전계층 (월소득 4만 루블 이하)
Perekriostok	가정용 소비재 (16,000개 이상) 신선농산물 위주의 식료품	-	- 중산층 이하 전계층 (월소득 4만 루블 이하)

□ 러시아 내 주요 유통채널 정보 : 하이퍼마켓

매장명	주요 취급품목	입점조건 (참고사이트)	주요고객
Auchan	식료품 및생활용품	-	- 차량 보유고객 - 소득 수준에관계없 이 모든 계층이 이용
Dixie	식료품 및생활용품	-	- 차량 보유고객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이 이용
O'KEY	식료품 및생활용품 (9,000~35,000개 사이의 SKU)	<업체> - 회사 이름 및 주소, 연락처(전화, 팩스, 이메일,홈페이지 주소) - 담당자 정보 - 연 매출액 - 회사 창립 연도 및 증빙서류 - 주요 생산품 - 제조업 시장에서의 위상 및 위치(업체 자율 작성) <품목>	- 중산층 이하 전계층 (월소득 4만 루블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 배송 방법 및 배달 도시</li> <li>- 상품 기본 정보 및 소개서</li> </ul>	
METRO	<p>20,000개 이상의 식료품 30,000개 이상의 비식품</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속도로 인접에 위치</li> <li>- 차량 보유고객</li> <li>- 개인 및 개인사업자형 태의 자영업자 등</li> </ul>
Magnit	<p>2,500~3,000 개 가량의 식료품 생활용품 위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이이용</li> </ul>

# V 러시아 통관 정보

## 1. 러시아 딸기 관세현황

< 관세율 >

HS CODE	0810.10
품명	신선 딸기
협정 세율	8.3% (부가세 18%)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러시아는 2012년 8월 WTO에 정식 가입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은 HS Code방식을 상품분류 코드로 채택하고 있음. 러시아의 HS Code는 최종 10단위로서 최종단위에 따라 관세가 부과됨. 한편, WTO의 가입 이후 5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2017년도까지 매년 러시아의 수입관세율은 거의 모든 품목에서 하향조정 될 예정
- 러시아의 관세는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가 복합적으로 운용됨
  - 러시아의 관세는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가 복합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러시아 수출전 관련 홈페이지 및 관세사를 통해 정확한 관세율 파악이 우선되어야 함
- 사치품을 중심으로 한 소비세와 부가가치세(18%) 별도 존재함
  - 소비세는 에틸 알코올 주정 및 주정 용액, 알코올제품, 맥주, 담배, 보석, 휘발유, 승용차 등에 품목별로 부여됨. 부가가치세율은 18%이며, 식품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세금계산서 금액 강제 조정 제도가 있음
  - 관세 책정은 기본적으로는 수출업체 및 수입업체가 신고한 물품 금액을 기반으로 하나, 러시아 세관당국 자체 기준가와 비교를 통해 강제 조정을 거쳐 최종 관세가 확정됨

□ 한국은 기본 관세율의 75%로 적용됨

- 러시아는 수입대상국을 5개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관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은 러시아 세관당국 구분 상 개발도상국에 분류되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본관세율의 75%가 적용됨 (25%의 면세 혜택)

□ 한국 기업 거래 시 특혜관세 내역

- 한국은 러시아 관세 분류 상 개발도상국에 해당되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본 관세율의 75%를 적용(25% 면세)
- 러시아는 수입대상국을 5개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관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자체 분류한 106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일반특혜관세(GSP)를 부여하고 있음
- 한국은 현재 러시아 국가관세위원회 규정 제1539호3(2003.12.15)에 의거하여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수입관세의 25%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수 있음

< 러시아 수입 대상국별 특혜관세 >

구분	관세율	비고
CIS 국가	면세	
최혜국 대상 국가	기본 관세율	EU 회원국 포함
개발도상국가	기본관세율의 75%	106개국 (한국포함)
최빈 개발도상국가	면세	49개국 (UN기준 최빈국)
기타국 또는 원산지 미증명 상품	기본 관세율의 200%	

출처 : The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Russia, 2013)

- 이외에 CIS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사탕, 알코올류, 담배 등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CIS 회원국 간의 상호협정에 따

라 예외조치가 적용됨

- 최빈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면세하며 우대세율 대상 품목 리스트는 러시아 정부가 결정함

## 2. 러시아 통관 주의사항

### □ 통관 주의사항

통관 절차시 주의사항	상세내용
① 상품 가격에 의한 관세 적용, 정확한 상품 가격 증빙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세관 측은 수출업자가 제출하는 제품가가 낮다고 판단될 경우 러시아 세관 당국의 자체 상품가를 적용해 관세를 책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지역 관세청에서 책정한 관세금을 내고 통관한 물품에 대해서도 추후 연방 세관 당국에 의해 재차 심사되어 추가 비용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li> <li>- 정확한 관세 산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물품가액 평가가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관세 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음(수출신고사본, 가격표 등)</li> </ul>
① 인보이스와 거래 계약서 상 물품 내역은 동일한 표기법에 따라 일치시켜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러시아 수출 통관 시 자주 발생하는 서류상 하자는 인보이스와 거래 계약서 상 물품 내역의 불일치임. 국문 물품 내역을 영문으로, 다시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기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의미임에도 표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li> <li>- 이 경우 제품 통관 시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며 서류 수정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요망</li> </ul>
③ 회색 통관에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러시아는 세관 당국의 부패와 비리 및 이와 결탁한 수입업자의 청탁으로 회색 통관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나 WTO 가입을 전후로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li> <li>- 회색 통관으로 진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러시아 조세 당국에 의해 판매 물품에 대한 적법 수입 여부 등이 재차 점검되므로 수입업자가 회색 통관을 시도할 경우 적극 만류해야 함</li> </ul>
④ 보세운송 비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세운송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해당 지역 관세청의 실적 채우기와 뇌물 수수 등을 위해 실제로 보세운송이 잘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li> </ul>
⑤ 국제물류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상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하우스 B/L 등이 인정되지 않음</li> <li>- 제출서류 미비 및 추후보완 등 조건부 통관 역시 안 되는 것이 일반적임</li> </ul>

출처 : KATI (www.kati.net)

### 3. 수출업체 등록, 수입허가 제도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측에 수출업체 등록을 필해야 함

- 「對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농림수산물부 고시 제164호, 2011.10.4)」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 식용 농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수출업체 등록을 마쳐야 함

< 러시아 식용농산물 수출업체 등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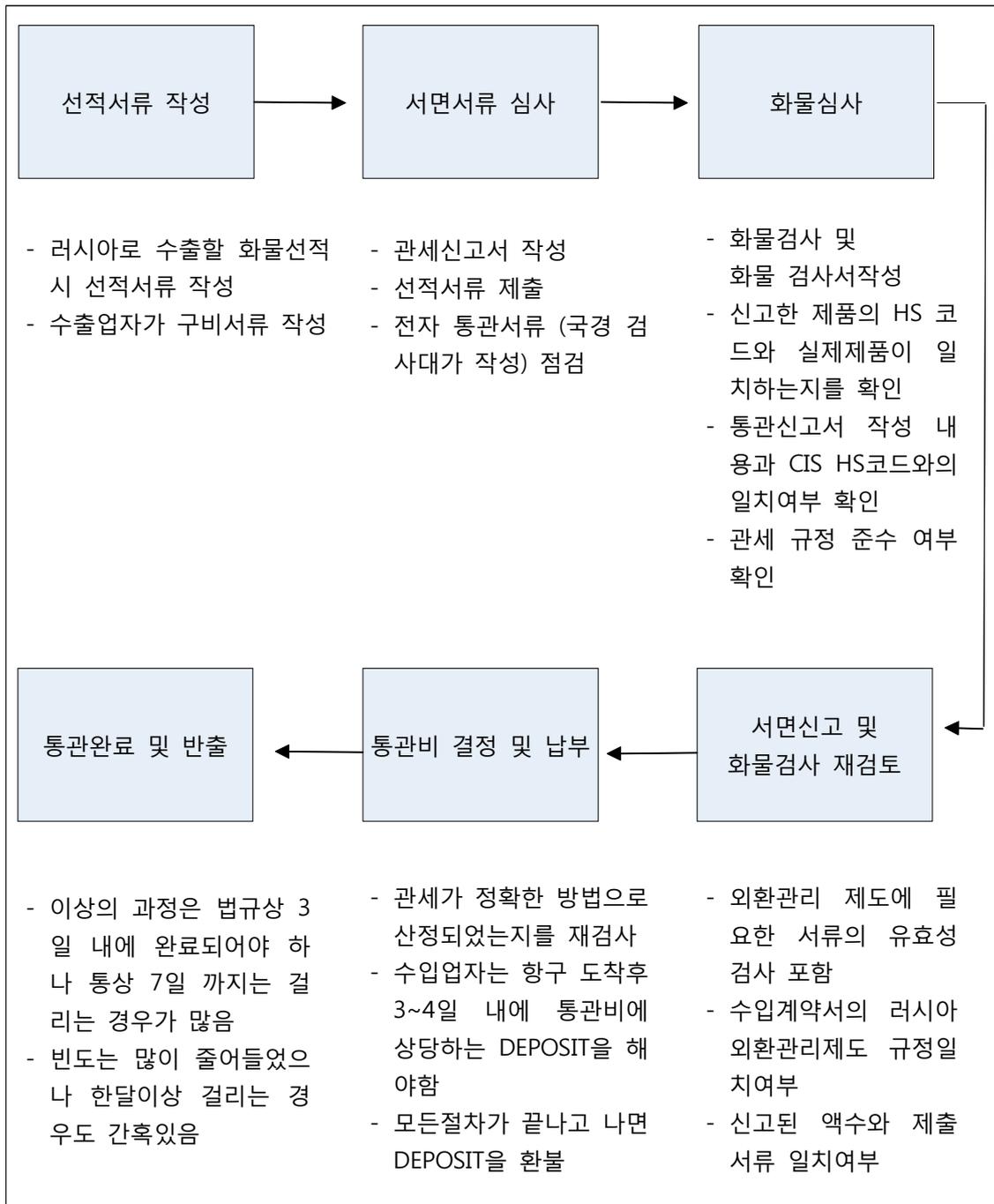
구분	내용	비고
범위	- 농림수산물부 고시 제3조에 따라 한국에서 재배·생산되어 러시아로 수출하는 식용 농산물	- 농산물 범위는 KATI에서 확인 가능
대상	- 위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업체 또는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모두를 포함	-
기본 의무 사항	- 수출품의 재배지 또는 수출단계에 대하여 안전성 모니터링 검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계) - 농약 및 비료 사용내역 기록 및 관리 - 등록 시 부여된 등록번호(품목, 지역, 업체, 농가)를 활용. 생산 품목에 대한 이력 관리 - 부적합품의 수출금지. 안전증명서 첨부 등 수출 관련 준수사항	- 안전증명서는 러시아 요청 시에만 해당
등록 절차	- 對러시아 수출업체 등록 신청서, 對러시아 농산물 수출계획서, 對러시아 농산물 수출예정 신고서 등 3개 서류(이상 별도 양식 있음)를 신청 업체 관할 at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제출 - 신청기관(각 지사) 연락처 서울경기 지사 02-820-2300 인천 지사 032-888-6162~3 강원 지사 033-920-1547 부산울산지사 051-644-1401~4 경남지사 055-274-8300 대구경북지사 053-741-5221~3 광주전남지사 062-940-7006 전북지사 063-211-6178~9 대전충남지사 042-488-8542~3 충북지사 043-273-4556 제주지사 064-746-9472	- 신청 양식은 KATI에서 확인 가능

출처 : 심층조사결과보고서 러시아편

## 4. 러시아 통관절차

### □ 통관 절차

< 러시아 통관 절차 >



출처 : KATI 심층조사결과보고서 러시아편

- 러시아의 통관은 크게 선적서류 작성 단계, 서면 서류 심사 단계, 화물검사 단계, 서면신고 및 화물검사 재검토 단계, 통관비 결정 단계, 통관비 납부 및 Deposit 금액 환불 단계, 통관 및 반출 단계로 이루어지며, 이들 절차 중 다수는 러시아 수입상에 의해 처리되나, 한국 기업들이 제공해야 할 서류도 다수 있으므로 절차 등을 잘 숙지해야 함

□ 수출입시 소요 시간 및 비용

- 수출

수출 절차	소요 시간(Day)	비용(USD)
문서 준비	13	200
통관 및 기술 관리	1	550
포트 및 터미널 처리	3	480
내륙 운송 및 취급	5	1,385
합계	22	2,615

출처 : doing business (www.doingbusiness.org)

- 수입

수입 절차	소요 시간(Day)	비용(USD)
문서 준비	12	285
통관 및 기술 관리	2	650
포트 및 터미널 처리	2	490
내륙 운송 및 취급	5	1,385
합계	21	2,810

출처 : doing business (www.doingbusiness.org)

< 러시아 통관 시 구비서류 목록 >

구비서류 목록	
수출입계약서	수입업자의 (수입)면허 원본
세관신고서	수입허가 서류 원본
상업용 송장 (Commercial Invoice)	식물위생증명서

포장목록 및 명세서 (packing list)	수입검역허가서
화물 운송장 및 B/L원본 (Contact of shipment B/L)	GOST-R
외환규제 제도에 따른 서류 및 물품가액 증명서류	수출국가 발행 안전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러시아 발행 안전 인증서
관세 납부(송금) 영수증	품질 인증 마크
C/O(Form A) (특혜 관세 해당 품목인 경우)	러시아어 사용법 표기 및 설명서

출처 : KATI ([www.kati.net](http://www.kati.net))

## VI 러시아 검역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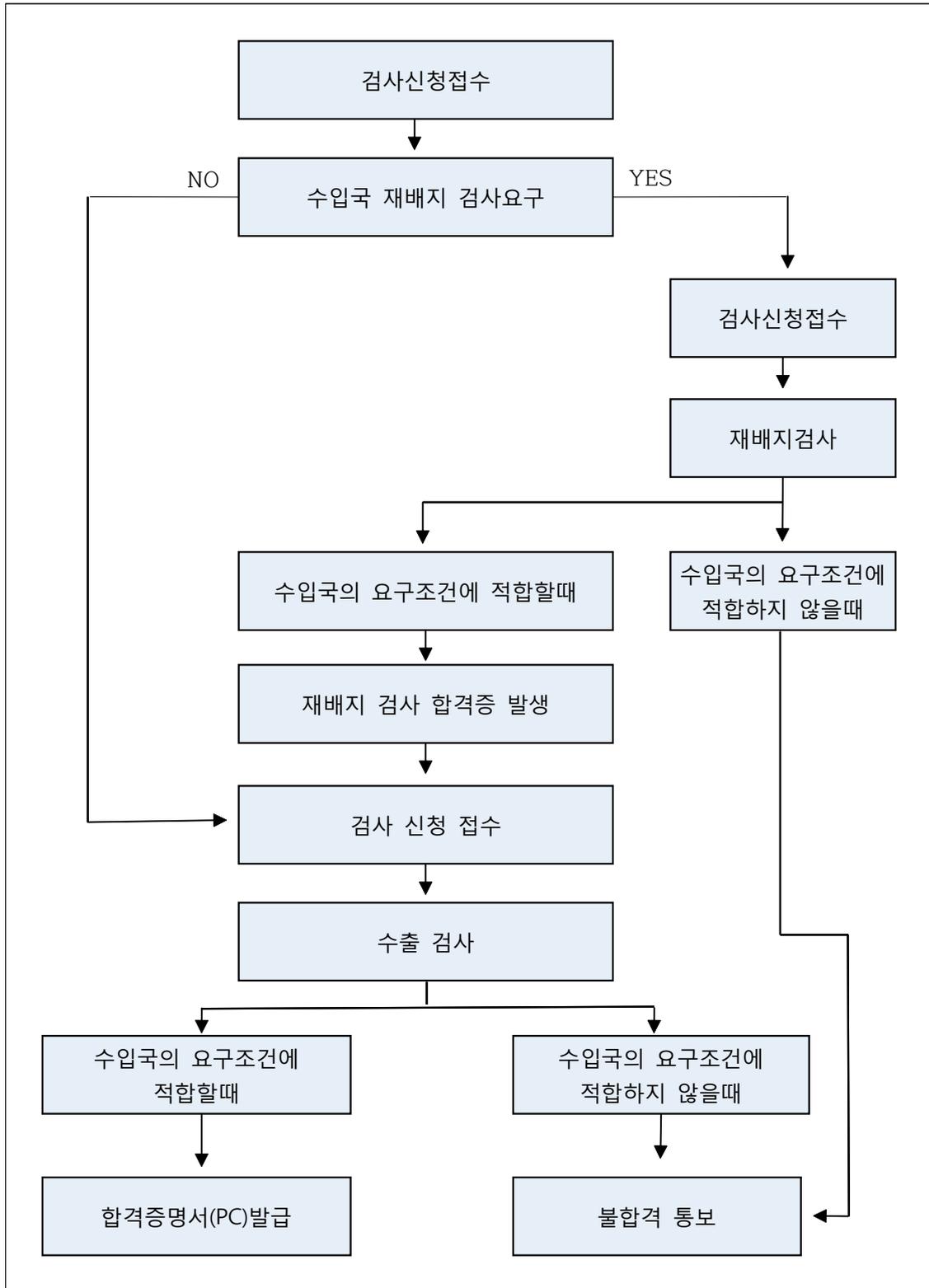
### □ 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를 통한 수출식품 검역

- 러시아는 한국 정부의 수출식품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 국내법상 한국에서 수출하는 식물에 대해서는 수출식품 검역을 거쳐야 수출이 가능함
- 따라서 과일류 수출 시에는 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를 통해 수출 대상국 수입 요건에 적합한지에 대한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러시아의 경우 다양한 국가로부터 과일을 수입하고 있고, 신선한 식품에 대한 수입 절차는 까다롭지 않은 편이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입 요건이 자주 변경되고 있음
- 따라서 수출 시 마다 검역본부를 통해 수출요건 변경여부 및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 과실류 공통 수입 요건

- 북송아순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에는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 북송아심식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에는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식물 검역절차 >



출처 : KATI (www.kati.net)

## VII 러시아 라벨링 및 인증 정보

### 1. 라벨링 정보

#### □ 식품표시제도

- 러시아의 식품 표준규정은 자국 식료품과 수입상품에 적용이 되며, 러시아 지역에서 도·소매로 판매되고 있으며, 사회 급식을 담당하는 기업, 학교, 유치원, 진료소, 그리고 소비자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 등에 적용되고 있음
- 현재 러시아에서는 수출 표준화 위원회(GOSSTANDART of Russia)의 상품표기법(GOST R 51074-97, 1997.8.15)에 의거하여 모든 러시아의 수입제품은 반드시 러시아어로 표기하도록 되어있음

#### □ 상품설명서

- 러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소비재에 대해 러시아어 설명서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음
- 제품명, 원산지, 제조업체, 제품용도, 주요 특징 및 제품사용설명서를 러시아어로 첨부해야함
- 해당 표기는 포장지, 라벨 또는 별지에 할 수 있으며 제품과 함께 동봉해야 함
- 상품설명서에는 다음 8가지 정보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상품명, 제조업체명, 상품의 기본용도나 사용범위, 안전한 보관·운송 및 사용방법, 기본적 소비특성 및 특징, 강제인증에 관한 정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법적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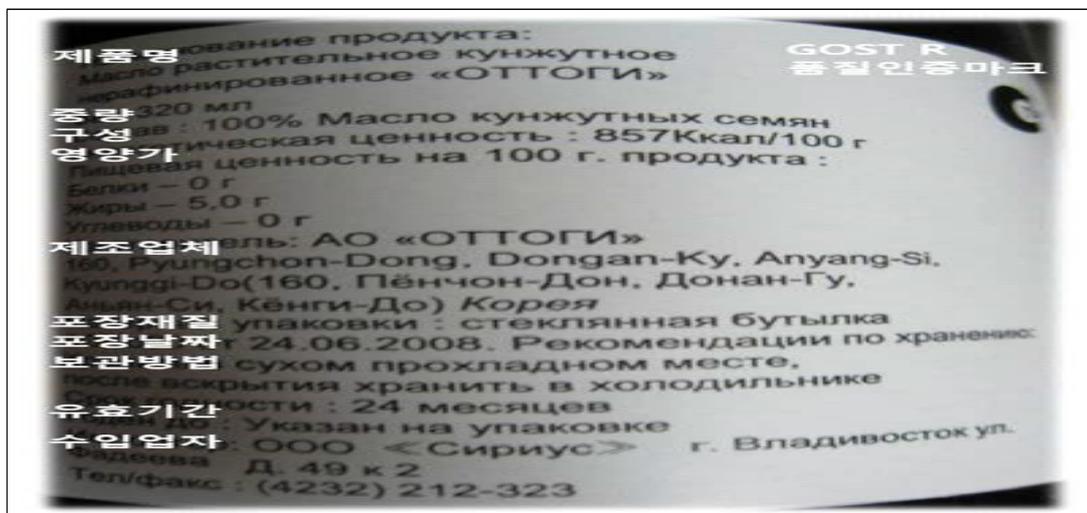
## □ 제품라벨

- 러시아는 소비자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엄격한 라벨링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 라벨링의 요구조건은 제품에 따라 다르며, 제품에 맞는 특정한 라벨이 무엇인지, (식품 첨가물이나 다이어트 보조제, 그리고 모든 조제약품들의 경우에서처럼) 추가적인 문서들이 필요여부, 구성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함
- 러시아의 라벨링 관련 법규는 기존의 EU의 지침들을 따르고 있으며 기존의 유럽의 관습에서 크게 다르지 않음

## □ 기본 기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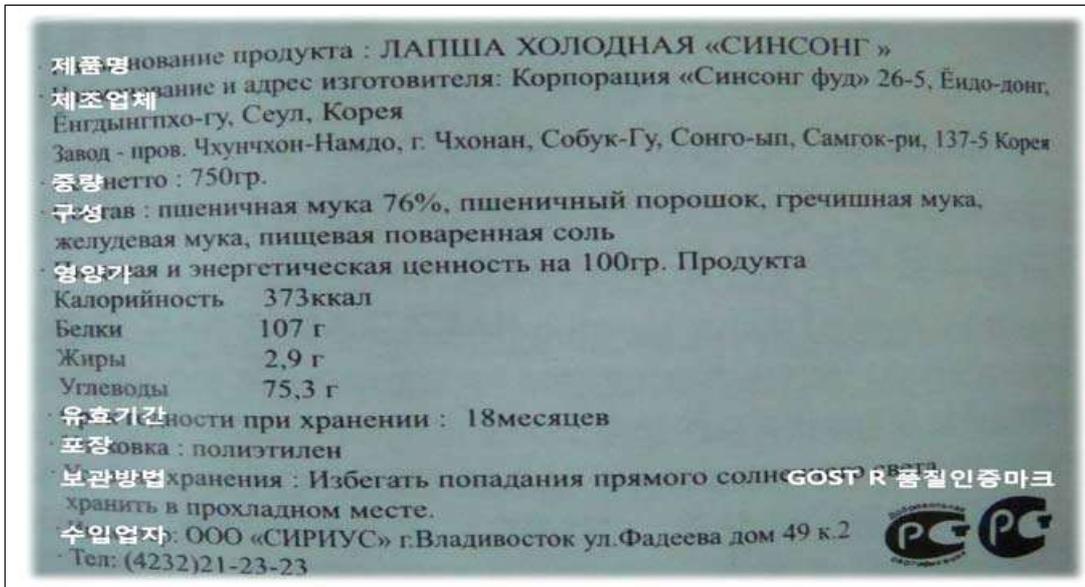
- 제품명
- 제조업체
-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법적 등록 주소
- 제품무게와 양
- 제품의 영양
- 첨가물
- 유효기간
- 포장 및 보관방법
- GOST R 인증

< 라벨 예시 >



출처 : SGS (www.sgsgroup.kr)

< 라벨 예시 >



출처 : SGS (www.sgsgroup.kr)

□ 추가 기재사항

- 냉장(냉동)된 육류, 가금류, 내장, 완제품 등의 모든 육류 제품은 냉동 또는 냉장 마크를 부착해야 함
- 진공포장 또는 가스충전포장의 경우에는 포장방식을 라벨로 부착해야 함
- 완제품 통조림의 경우 최종 조리방법에 대한 권고사항을 기재해야 함

## 2. 인증 정보

□ GOST-R은 러시아 농식품 수출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

- 러시아 국가규격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тандарт России」의 약자를 영어화 한것으로, 1994년 러시아 연방의 「소비자 권리보호 관련 법률」에 의하여 러시아로 수출되는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하여, 러시아 내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 규격의 일치를 증명하는 강제 인증 제도임

- 품목에 따라 강제적으로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와 자율적으로 인증을 선택적으로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 거의 모든 상업용 제품이 GOST-R 강제 인증 품목으로 정해져있다고 봐도 무방함
- 농식품은 강제인증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음

< GOST-R 인증 유형 >

구분	강제 인증	자율 인증
적용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류(육류, 어류, 패류, 채소류, 과일류, 곡물류, 유지류, 주류, 및 음료류)</li> <li>- 화학제품</li> <li>- 목재류</li> <li>- 신발류</li> <li>- 의류 및 편물 제품</li> <li>- 금속 제품</li> <li>- 기계류</li> <li>- 난방기구류</li> <li>- 전기, 전자 제품 및 부품류</li> <li>- 지상 운송 기기류</li> <li>- 스포츠 용품류</li> <li>- 기타 안전장구 및 관련 제품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사용 및 상업적 목적이 아닌 제품</li> <li>- 외국 정부기관과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제품</li> <li>- 기 반입 설비에 대한 수리 및 대체 부품</li> <li>- 인도주의적 목적이나 기술지원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li> <li>- 중고 제품</li> </ul>
인증서 종류	Mandatory GOST-R Certification	Voluntary GOST-R Certification
인증서 발급 소요기간	품목별 5~10일 (인증유효기간 및 품목에 따라 상이)	

출처 : www.gost.ru

< GOST-R 인증 마크 >



- 국내에서는 5개 인증 기관이 GOST-R 인증 대행 가능

< 국내 GOST-R 인증 기관 >

기관 명	연락처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외국 인증팀	02-860-1455	www.ktl.re.kr
CTR Far East	02-709-4580	www.sgsgroup.kr
Sercons 한국지사	02-544-0233	www.sercons.co.kr
GSI(법세검정)	02-752-7583~4	www.gsi-gost.co.k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0011	www.ktr.or.kr

□ 제출 및 첨부서류 구비 시 인증에 1~2주 소요

< GOST-R 제출 및 첨부서류 >

제출서류	첨부서류
GOST 인증 신청서	선적 리스트(Packing List), 상업 송장 (Commercial 세금계산서), 제조일 및 유통 기간, 제조자/수출자 상세정보, 제품 HS code 등
품질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 생산자가 직접 작성	제품 매뉴얼, 카달로그 등 첨부
테스트용 샘플(제품/용량별 4개 이상)	가능시 자체 테스트 보고서 첨부
러시아어 라벨링	
국가위생증명서(State Registration Certificate)	식물위생검역증(Phytosanitary) (과일 및 식물의 경우만 해당)
원산지 증명서	
기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성적서 - 보유시에만 제출	
ISO - 보유시에만 제출	

출처: Russia Legal Provisions, Swiss Business Hub Russia(OSEC), 2012)

□ 수출 목적 및 향후 전망치에 따라 각기 다른 인증 유효기간 설정 필요

- 인증 유효기간에 따라 단일 선적건에만 적용되는 단일선적인증(Single Shipment Certificate)과 1~3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는 연속생산인증(Serial Production Certificate)으로 구분되며 인증 과정, 비용 등이 상이하므로 수출 목적에 맞는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일선적인증은 단일 1회의 선적 건에만 적용되는 인증으로써 1회성·단발성으로 수출할 경우이거나, 본격적인 중장기적 수출 계획 이전의 시장성테스트 성격으로 수출할 경우에 적합함
  - 러시아 현지 수입업체와의 계약서나 인보이스 등으로 러시아에 고객(수입업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발급 가능
- 연속생산인증은 수출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이거나, 정해진 기간(1~3년 사이)동안 선적 횟수와 수량이 일정하지 않고 다발적으로 물품을 수출하게 되는 경우에 적합함

< GOST-R 인증 유효기간에 따른 분류 >

구분	단일선적인증 (Single Shipment Certificate)	연속생산인증 (Serial Production Certificate)
인증 절차	서류 제출→서류심사→인증서발급	서류제출→(필요시) 샘플테스트 및 공장 실사→인증서 발급
발급 소요 기간	서류제출 후 약 1주일 내외	서류제출 후 10~15일

출처 : [www.sercons.co.kr](http://www.sercons.co.kr)

□ 「aT 해외인증제도 등록지원」제도 활용 시, 인증 소요비용의 70%까지,업체당 총 2,000 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음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해외 인증제도 등록지원」은 수출농식품의 해외 인증제도 등록 지원을 통해 고품질·고부가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농식품 수출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신규 수출 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 도모를 위한 지원 제도임

- 
- 지원제도 관련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KATI 농수산물지원정보 (www.kati.net) 내 「수출 안전 정보-안전성정보게시판」이나 수출지원 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함

□ 국가위생인증(State Registration Certificate)

- 국가위생인증(State Registration Certificate)은 식품과 잡화 및 조리기기 등 사람이 직접 섭취하거나 접촉하는 제품에 대하여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위생검사로 절차가 까다롭고 샘플 테스트가 필요함

□ 식품법 및 관련 제도

- 러시아에서 생산, 수입, 판매되는 모든 식품의 품질과 안전은 「식품의 안전 및 영양에 대한 위생적 요구사항(SanPiN-01)」의 위생 역학적 규칙 및 규제에 따름
  - 이 위생규칙은 러시아 의료과학 영양연구소 및 보건부에 의해 2002년 9월 부터 시행되고 있음
  - 기존 SanPiN-96을 개정하여 영양소 요구사항 축소, 영양소가 규정된 식품 목록 축소, GMO 성분 함유식품 또는 GMO 식품에 대한 표시의 무화 등이 반영되었음

## VIII 러시아 바이어 정보

※ 최종 바이어 리스트 및 컨택 내역은 별도 엑셀 파일(바이어 상담내역)로 첨부하였습니다.

### □ 바이어 컨택 주의사항

#### - 법적 테두리에 입각한 거래 필요

- 러시아는 2012년 WTO 가입을 계기로 행정 투명화 및 부정부패 척결에 집중하면서 단속을 강화하여 원칙적인 거래를 원하는 바이어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하지만, 종종 편법적인 거래를 요구하는 바이어들이 있고 계약·수입·통관절차를 늦추는 경우도 여전히 있으나, 법을 우회하는 방법에 치중할 경우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계약 체결 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수출보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가급적 첫 거래는 L/C 거래가 아니더라도 T/T 조건 등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수금 및 외상 지불 조건 등을 협의하여야 함. 외상 거래 요구가 많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나서 거래를 하거나, 가능한 선수금을 많이 받도록 협상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수출보험을 반드시 들어두는 것이 좋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보험지원 제도 활용 시 도움)

#### - 처음부터 많은 물량의 오더 기대는 금물

- 러시아 바이어들은 수출업자와의 신용을 쌓기 전 성급한 장기계약, 많은 물량계약 등을 잘 하지 않으며 초도 물량 및 이후 얼마간은 소량의

---

거래를 하며 신용을 쌓고 믿음이 생기면 물량을 늘려나가는 행태를 보임

- 따라서, 처음부터 많은 물량의 발주 기대는 금물이며 소량 발주라 하더라도 고정 수출을 원한다면 향후 지속적 거래를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 참고자료

- FAO : [http://www.fao.org/infoods/tables\\_int\\_en.stm](http://www.fao.org/infoods/tables_int_en.stm)
- 프레쉬마켓 : <http://www.db.freshmarket.eu/>
- 한국무역협회 : [www.kita.net/](http://www.kita.net/)
- 글로벌윈도 : [www.globalwindow.org](http://www.globalwindow.org)
- 관세청 : [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제약산업정보포털 : <http://epharmakorea.or.kr>
- KATI : [www.kati.net](http://www.kati.net)
- GTA : <http://www.gtis.com/gta>
- SGS : [www.sgsgroup.kr](http://www.sgsgroup.kr)
- KOTRA :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 러시아 경제개발부 : [www.economy.gov.ru](http://www.economy.gov.ru)